

대권노리는 孫 VS 당권노리는 朴 ‘정면충돌’

학규

지원



孫 “범야권 통합 전대” 朴 “단독 전대후 통합”

혁동·지도부·친노그룹과 ‘원샷 통합’ 논의 주도

야권 통합의 방법론을 놓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진검 승부’가 펼쳐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대표는 현재의 지도부 체제를 바탕으로 혁신과 통합 등 당 밖의 세력과 야권 통합 논의를 주도하면서 다음달 17일 ‘원샷, 통합 전대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전 원내대표는 야권 통합은 민주당 중심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당내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야권 통합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통합 정당의 주도권을 놓고 당내 세력 간의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야권 통합이 어떠한 수순을 밟느냐에 따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손 대표는 이번 통합을 일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내년 대선을 기약할 수 있는 형편이고 박 전 원내대표도 당내의 지지 세력의 뜻을 관철시켜야 당권에 가까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체적인 구도는 손 대표가 유리한 국면이다. 우선, 통합의 명분을 선점한데다 정동영, 정세균, 이인영 최고위원 등 현 지도부와 당내의 친노 그룹 등이 손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과 통합 등 당 밖의 세력들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 손 대표의 통합 행보에 우호적인 모습이다.

손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당내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당헌·당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지도부의 통합 논의에 반대하는 당내의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 전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 14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원내외의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당 밖에서는 민주당 단독 전대회 개최를 위한 대외의 서명 작업이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따라, 손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의 ‘진검 승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통합정당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가닥이 지어질 전망이다.

손 대표가 당내의 반발을 무마하고 통합 정당 연석회의 등을 거쳐 통합정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통합



지역위원장 지지 기반 민주당 중심 통합 추진

전당대회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의 지도부는 통합의 수임기구가 아니며 당헌·당규에 따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내의 반발이 구체화된다면 통합정당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차질을 빚으며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손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가 통합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17일 오전에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열고 지도부 선출과 합당 등을 결의한 뒤, 오후에 통합 정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지역 기관·시민사회단체 등 80여개 단체가 참여한 '5·18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 기관·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2차 긴급대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삭제 규탄’ 온라인 서명 하룻새 4000명

광주연석회의,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 공동대응키로

정부가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통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광주시가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폐기와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를 위해 15일 개설한 ‘온라인 국민서명운동 사이트’(www.gimayor.net/518.jsp)가 개설 하루 만에 서명자가 4000명에 달하는 등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경남, 경북과 충청,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서명과 함께 정부의 역사 인식을 비난하는 글을 남기거나 역사 집필기준 철회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지역 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응원의 글을 남기고 있다.

황다운(부산시 해운대구)씨는 “역사 교과서에서 역사를 지우나?”라고 정부를 비난했고, 김민경(경북 상주시)씨는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역사교육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조해진(부산시 금정구)씨는 “조선시대 사관은 목숨을 걸고 역사를 지켰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사편찬위원회 여러분”이라고 역사편찬위원회에 따끔한 충고를 하기도 했다.

강효경(대구시 중구)씨는 “이런 것을 서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네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고, 정인숙(대전시 서구)씨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무개념이 있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안희국(대구시 중구)씨는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기

자의적 집필기준 마련 방지를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에 5·18 등 민주화운동 등이 삭제된 현 집필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 역사 교과서 뿐 아니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도 5·18 민주화운동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도록 하고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에도 광주지역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부 왜곡된 역사의식 큰 문제”

집필기준 반발 사퇴 이익주·오수창 교수 인터뷰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8일 이익주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전체 20명 위원 중 10명이나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정 운영되는 역추위는 정부 측의 왜곡된 역사의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개발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역추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가 사퇴한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14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미 사퇴를 했고 다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광주·전남지역에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데 대해 “역사교과서 문제는 지역문제가 아니다 향후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법에 대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오수창 서울대 교수는 지난 8월16

일 교과부 장관이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내용 중 ‘민주주의’ 관련 항목을 ‘자유민주주의’로 임의로 변경해 고시하자 “절차상 부당하고 학문상 부적절하다”며 9월 초 역추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오 교수도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육과정 고시시 집필기준 이전에 마련하는 것으로 이미 정책연구회에서 검토를 마친 것을 정부 측에서 고쳐서 고시해버렸다”며 “강하게 정부 측에 항의하고 역추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집필기준 논란과 관련, “집필기준을 썼는데 독재라는 명



이익주 위원장 오수창 교수

확한 서술이 없고 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문제다. 뉴라이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금 FTA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합동공인 상임로 입구)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교사거리)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옆) 02733-0220 송파점(선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인민회관 옆)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옆) 031246-5110 의정부점(모천로터리)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옆) 03166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국인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 032329-4400 남양주점(평내로) 071823-98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051818-8800 서면5점 818-0016 남포동점(부평역) 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로터리)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51-0100 진주점(중앙로터리) 055745-4870 대구 동문점(중앙로터리)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리) 053425-7576 경북 포항점(북구) 054044-5110 인동점(구.인동농고교사거리) 054859-2248 광주 광우점(구.도림 옆)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061705-8945 전북 전주시점(전북로터리) 063252-5722 군산점(구.서생빌딩 옆) 063446-7188 익산점(부평로) 063838-6200 남원점(신원로) 063832-3626 대전 대덕점(도심)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155-2888 광주점(광주루터) 0411852-5110 충북 청주점(한계동) 043254-5110 대전점(충안로) 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역) 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평로) 06470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품질

ISO 13485인증 국제의료기기품질

CE 0120 유럽공통체 CE마크 인증

GMP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권도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박운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